

브리핑

원자력과 민주주의 심포지움 27~29일 진행

이화여성신학연구소는 27일(화)~29일(목) 오후2시 대학원관 강당에서 원자력 체제에 대한 문제점 고찰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 및 전시를 진행한다. 특강은 무료로 진행된다. 특강에는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상임의장, 장운재 교수(기독교학과) 등이 참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77-3278)

양성평등센터 2학기 프로그램 26일, 29일 진행

양성평등센터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국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 문채수연 국장의 특강을 26일(월) 오후5시 생활환경관 318호에서 진행한다. 특강은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교육연극을 활용한 워크숍은 29일(목) 오후1시~5시에 학생문화관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워크숍에는 힐링드라마연구소 NOW의 백운영 미 소장, 양성평등센터 홍상희 연구원이 참여하며, 선착순 2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문의번호로 연락하거나 학생문화관 320호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77-3229)

중앙도서관 자료 탐색법 교육 10월12일 실시

중앙도서관은 10월12일 오후3시30분~5시30분 이화·포스코관 B161호에서 양적 연구를 위한 통계·여론조사 자료 탐색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교원 및 대학원생이다. 참여자는 통계·여론조사 자료 탐색법, 온라인분석·조사시스템, KSDC(한국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적연구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교육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lib.ewha.ac.kr)→연구학습지원→정보검색교육→정기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번호나 메일(jnam@ewha.ac.kr)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77-3658, 3647, 3144)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국내외 정규대학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10월4일 오전10시~13일 자정까지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영역은 석사학위과정 사회복지, 박사학위과정 임상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이며 수업연한은 각 4학기, 6학기 이상이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uwayapply.com)에서 인터넷 접수한 후 출력한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입학 원서, 연구계획서, 진학추천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어학능력 시험 성적 각 1부)을 10월 17일 오후5시까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학부(이화·포스코관 107호)에 내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gssw@ewha.ac.kr)이나 문의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77-2913, 4532)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2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사회복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5일 오후12시30분~1시30분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77-2913)

글로벌서비스센터 개소식 28일 진행

글로벌서비스센터 개소식이 28일(수) 오후3시부터 30분간 ECC B329호 앞 로비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김선옥 총장, 교원, 학생들이 참여하며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서비스센터는 국제교류처 산하의 행정부서로, 외국인 학생 및 교원에게 학교생활과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77-6985, 6986)

tech+2011 대학생 자원봉사자 29일~10월8일 모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tech+2011(테크플러스 포럼)'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29일(목)~10월8일 모집한다. 테크플러스 포럼은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지식콘서트로, 11월9일~10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모집 분야는 학생기자, 현장운영, 온라인 블로그 기자단이며,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techplusforum.com)에서 자원봉사자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메일(techplus@kiat.or.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번호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6009-3146)

바로잡습니다

◆이대학보는 1406호(2011년 9월 19일자) 12면 '날마다 기부하는 송경애 동문-"제가 가진 긍정의 힘은 나눔에서 나와요" 기사'의 오류를 정정합니다. '판매된 도서의 인세는 경영학부에 전액 기부했고'를 '기부할 예정이다'로 바로잡습니다. 기사 오른쪽에 쓰인 사진에 대해 BT&I는 '사진은 경영대의 동의 없이 BT&I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으로 이대학보는 더욱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9 이화인 촛불행동의 날'

2개 단대 '청계광장까지'

2개 단대 '학내 문화제만'

5개 단대는 '미정'

'9.29 이화인 촛불행동의 날'이 29일(목) 오후5시 정문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학내 문화제와 오후7시 청계광장 문화제로 나뉘어 열린다. 학내 문화제에서는 한국대학문화연대의 공연, 중앙운영위원회의 카드섹션, 소원 적어 비행기 날리기 등이 진행되며, 청계광장 문화제에서는 정치인과 학생들의 토크콘서트, '국민 촛불한마당' 등이 열릴 예정이다. 본지가 22일(목) 12개 단과대학(단

대) 중 9개 단대를 대상으로 '9.29 이화인 촛불행동의 날' 문화제의 참석 여부를 취재한 결과, 모두 참석하겠다고 답한 단대는 2개였다. 2개 단대는 학내 문화제만 참석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5개 단대는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이거나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개 단대 대표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학내 문화제와 청계광장 문화제에 모두 참석하는 단대는 약학대학(약대), 조형예술대학(조예대) 2개 단대이다. 학내 문화제에만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단대는 인문과 학대학(인문대) 등 2개였다. 스크랜튼대학, 공과대학 등 5개 단대는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이거나 개인 사정

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예대 김현경 대표는 "'9.29 이화인 촛불행동의 날'은 등록금 문제가 꼭 해결되길 바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라며 "그만큼 행위를 논의 중이거나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개 단대 대표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총학생회(총학)는 '9.29 이화인 촛불행동의 날'에 요구할 사안 중 반값등록금 문제는 학교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계광장 문화제에 참여한다는 입장이 다. 총학은 ▲반값등록금 실현 ▲학

생식당 개선 ▲과주캠퍼스 적립금을 학생에게 투자 ▲스쿨버스 확충 및 공간사용 신고제로 전환 등 4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총학은 학생처로부터 학생회비에서 약350만원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9.29 이화인 촛불행동의 날'의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총학은 이에 대해 학내 선전비용 및 감사 초청비용으로 사용할 뿐 청계광장 문화제에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부총학생회장은 "청계광장 문화제는 한국대학생연합에서 주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드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강 기자 lck0728@ewhain.net

총학, 사랑의 우산 회수 안돼 ... 3월1일 200개→22개 남아

비오는 날 우산이 없는 이화인을 위해 우산을 빌려주는 '사랑의 우산'이 사업을 시작한 3월1일부터 14일(수)까지 11%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학생회(총학)가 '사랑의 우산' 사업을 시작한 3월1일, 우산은 200개였으나 8월 말 집계 시 회수된 우산은 0개였다. 이에 총학은 반납을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 문자를 받은

학생 중 약40%만이 우산을 반납했다. 14일(수) 총학은 시일 내에 반납될 우산을 포함해 22개의 우산을 갖고 있었고 19일(월) 우산 100개를 추가로 구비했다. 추가로 구비한 우산은 개당 3천118원으로, 100개를 구비하는데 약 31만원이 들었다. 178개의 우산이 분실되면서 약5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한편, 총학은 이번 학기부터 학생증 등의 신분증을 맡기는 학생에게만 사랑의 우산을 대여해주고 있다.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예치금 1천원을 내거나 신분증을 맡기면 사랑의 우산을 빌릴 수 있었다.

김지영 부총학생회장은 "학생증을 맡기는 방식으로 사랑의 우산 대여 방법을 바꾸자 회수율이 높아졌

다"며 "사랑의 우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이 원활해져 더 많은 학생이 사랑의 우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예나(식품·09)씨는 "학생증을 맡기게 되면 학생증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없어 사랑의 우산 회수가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황미리 기자 ahead@ewhain.net

동원 학생문화관 앞 도로에서 '바닥그림' 그리는 공동행동 진행

동아리연합회(동연)는 22일(목) 정오 학생문화관(학문관) 숲에서 ▲자치공간 확보 ▲필요한 경우에만 지도교수 선택 ▲공간사용신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냉난방 문제 해결 ▲지원금 확충 ▲물품지원 등 6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목요일 집회를 열었다. 이날 공동행동에서 동원은 학문관 앞 도로에 유성 페인트(라카)로 자치공간을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은 그림 그리는 것을 지지하려는 학생처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

동연 조자홍 공동대표는 "학생처가 동아리들이 몇 년 전 학문관 앞에 바닥그림을 그릴 때는 제지하지 않았다"며 "여기에서 물러나면 학생의 자치권이 좁아질 것 같아 공동행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처는 "한번 그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학교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 관용하기

는 어렵다"며 "자치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 페인트를 칠하여 의사 표시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학교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공간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2일(목) 공동행동은 8일(목) 열린 가을 대동제 '동감'에서 동연이 계획했던 '바닥그림'이 연기되면서 진행됐다. 동연이 8일(목) 오전11시 학문관 앞 도로에 지워지지 않는 라카로 자치공간 확보를 주장하는 그림을 그리려 했으나 학생처는 기물 훼손이라며 이를 막았다. 학생처는 "지워지지 않는 라카로 아스팔트 바닥에 그림을 행위는 학교 시설의 훼손에 해당한다"며 "학교 기물이 훼손되는 경우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칙에 따르면 지워지지 않는 물



22일(목) 정오 학생문화관 앞에서 바닥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아리연합회 배유수 기자 baeyoosu@ewhain.net

감으로 교내 시설에 그림을 그리는 등 학교 기물을 훼손한 학생은 징계 대상이다. 또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을 발견한 교직원 은 이를 학생의 소속 단대 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학칙의 '학생 징계 규정' 제2조 8항에 따르면 '학교 기물의 훼손, 학교 재산의 무단사용 또는 무단반출 등의 행위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학생'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학칙 제2장 제5조는 '징계사유

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교직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생의 소속 대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처는 "학내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해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학생처는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미 기자 semi0809@ewhain.net

ECC 열람실 학생증으로만 출입 가능

이화·신한열람실, 자유열람실 1,2가 학생증으로만 출입이 가능해졌다. 중앙도서관(중도)은 19일(월)부터 ECC 열람실 좌석표에서 바코드를 없애 학생들이 학생증으로만 열람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증과 좌석표 모두를 출입할 경우에는 한 사람의 학생증과 좌석표로 다른 사람까지 동반 입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인의 입실도 가능한 상태다. 좌석표는 학생들이 외출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로 악용되곤 했다. 이번 조치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등 일부 학생들이 열람실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중도 김선미 직원은 "학생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퇴실처리를 해야하지만 외출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외출처리를 한다"며 "외출 후 제 시간에 못 올 경우 친구 등 주변사람에게 부탁해 퇴실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하(문정·09)씨는 "이번 조치로 열람실 이용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열람실 시스템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 같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서는 기자 west_silver@ewhain.net



학부생을 위한 대학원 전공 박람회 열려 23일(금) 오후2시 ECC 지하4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학부생을 위한 대학원 전공 박람회-대학원 FAIR'에서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일반대학원 52개 학과, 전문대학원 5개 학과와 특수대학원 1개 학과가 참가했으며 대학원 진학 및 진로에 관련된 사항을 1:1로 상담했다. 최형욱 기자 oogui@ewhain.net